



01

아이들의 반응에 대한 반응 팁

1 아이의 비언어적 행동에 대한 반응

아이들이 낱자나 계절 등 맞지 않게 반응 할 수 있고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그럴 때 “틀렸어. 다시 해봐” “아니지” “빨리 좀 해봐”라고 바로 반응한다면

아이들은 흥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.

아이가 스스로 고민하고 선택하며 해 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반응 해 주시면 좋습니다.

또한, 부모님은 아이의 행동과 표정 등 비 언어적인 표현에도 반응 해 주신다면 아이 스스로가 뿌듯함을 느끼고 더 적극적으로 활동 하는 동기가 될 것입니다.

예시

- (아이가 자석 마그넷을 붙히는 상황) 그것을 거기에 붙히는구나.

Are you going to stick it here?

- ▶ 행동에 대한 반응은 아동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전달 할 수 있습니다.

- (무엇을 선택해야 할 지 고민하는 상황) 음. 너는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 어떤 것을 할까 훑어 보고 있는구나.

Hmm. You're looking to choose which one to stick.

- ▶ 아이가 선택한 것을 하나하나 명명 하지 않아도 됩니다. 그것, 저것으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.

- (아이가 자신만의 달력을 완성 했을 때) 너가 선택한 자석들로 오늘의 달력이 완성되었네.

You completed today's calendar with the magnets you chose.

- ▶ “와~ 잘했네” “최고”와 같이 결과가 아닌 과정에 초점을 맞춰 주세요.

결과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틀린 경우,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의 좌절감이 더 클 수 있습니다.

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노력한 과정에 대하여 반응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.

2 아이가 도움이 필요할 때

혼자서 달력을 완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럴 때 부모님은 옆에서 도와서 같이 할 수 있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 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다소 엉뚱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귀를 기울여 주면 아이와 대화가 이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.

예시

- (혼자 못하는 상황) 우리 생각 해 보자 / 우리 같이 완성 해 보자.

Let's think about it. / Let's finish it together.

- (날씨를 고민하는 상황) 음.. 오늘의 날씨가 어떨까? 창문 밖을 봐봐. 어떤 것 같아?

Hmm. How's the weather like today? Look out the window. What do you think?

- ▶ 부모님이 무조건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부분별로 물어봐 주고 생각 할 수 있게 하며 부모님이 힌트를 줄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부모님과 함께 완성하게 되면 다음번엔 더 쉽게 혼자 할 수 있게 될 것 입니다.

3 언어적 행동에 대한 반응

아이가 달력을 꾸미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.

오늘이 아이에게 특별한 날일 수도 있고, 학교에서 친구와 어떤 약속을 한 날일 수도 있습니다.

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때 다양한 이야기 거리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.

이때 자칫, 아이가 무언가를 이야기 하려 할때 단순히 “알았어” “응”과 같이 너무 성의없는 대답을 하면

아이와 질적인 상호작용이 어려 울 수 있으니 아이가 하는 말에도 귀 기울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

말하고 있는 아이의 표정을 보면서 감정을 읽어 줄 수도 있고, 아이가 하는 말을 요약하거나 다른 말로

다시 말 해 줄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아이가 추가적으로 생각을 확장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.

예시

- (아이 : “오늘 기분은 슬픔이에요. 친구가 내가 가지고 노는 것을 가지고 갔거든요”)

그랬구나. 많이 속상했겠다. 엄마도 네 이야기를 들으니 속상하다. 그 친구는 왜 그랬을까.

(Child : “Today, I feel sad because my friend took my toy that I was playing with”)

I see. You must have been really upset. Hearing you say that, I feel upset too.

I wonder why your friend did that.

- ▶ 아이의 감정을 반영한다는 것은 아동의 감정과 욕구들을 이해하고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부모님께 감정을 공감 받으면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데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.

- (아이 : “엄마 오늘 날씨는 비예요”)

그러게. 창문 밖을 보니까 흐리고 비가 주룩 주룩 내린다.

(Child : “Mom, it is raining today”)

I know. It's cloudy and raining outside.

- ▶ 아이가 말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은 아이에게 자신이 아동이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이해한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합니다. 너무 반복적으로 이야기 하면 자칫 앵무새 같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타임에 반영 해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.

- (아이 : “엄마 오늘 미미 생일이야. 미미가 오늘 집에 생일 초대했는데”)

어머, 그렇구나. 엄청 신나 보이네. 미미 생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 하면 좋을까?

(Child : “Mom. Today's Mimi's birthday. Mimi invited me to her birthday party”)

Oh, that's nice. You look so excited. What should we prepare for her birthday?

- ▶ 아이의 생각과 감정을 공감 후 아이가 생각 할 수 있는 거리를 자연스럽게 물어보면 놓치고 있는 부분을 생각 할 수 있게 됩니다.

4 아이가 확인 받으려 할 때

계속 해서 가지고 와서 보여주거나 자신이 하는 것에 대해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일 때 격려 해 주거나 엄마가 보지 않아도 스스로 잘 할 수 있고, 정답이 없음에 대하여 전달 할 수 있습니다.

예시

- (아이 : “엄마 엄마. 이것 봐요”) 엄마한테 너가 하는 것을 보여 주고 싶은가 보다.

OO야. 그런데 엄마는 네가 엄마 없이도 혼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.

(Child : “Mom. Look at this”)

You want me to know what you do. I think you can do it by yourself.

- ▶ 엄마에게 확인 받고 싶은 아이의 마음을 읽어 주되,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 해 준다면 엄마 없이 스스로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.

- (아이 : “엄마가 만들어 주세요”) 음. 엄마가 대신 해 주기를 원하는구나. 엄마와 같이 해 볼까?

(Child : Can you make it?)

Hmm. You want me to do it for you. Let's just do it together.

- ▶ 아이가 스스로 하기 자신 없어 할 수 있습니다. 그럴 때에는 상황에 따라 함께 완성 할 수 있고, 아이가 혼자 할 수 있을 때에는 옆에서 조금 기다려 주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 할 수 있습니다